

한국 최초의 근대 사전 『國漢文新玉篇』의 편찬 동기

하 강 진*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國漢文新玉篇』의 편찬 동기 |
| II. 近代 字典의 개념 | V. 마무리 |
| III. 『國漢文新玉篇』의 서지와 편찬자 | |

I. 머리말

字典은 한자의 이해, 한문 전적의 해석, 시문의 창작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구 서적이다. 한문을 문자 언어로서 사용한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전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辭書를 받아들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은 각종의 역사서나 문집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곧 중국에서 연구한 훈고학적 지식, 음운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문 연구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자전은 문자 향유 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문의 고급 식자층들은 시문 창작을 위해 자음 정보인 성조와 운자에 깊은 관심을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미디어창작전공 교수

갖고 한자를 연구했다. 이에 따라 규범화된 중국음을 제시하고 우리의 현실음을 이에 근접시키기 위해 운서라 불리는 자전을 다양한 형태로 편찬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한자에 대한 중국 발음과 우리 발음의 차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발생한 자음의 변이는 자전 편찬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한자의 입문 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천자문』을 수용하거나 우리 실정에 맞게 이를 변용한 한자 학습서가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서의 독자적 성격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바로 우리식의 의미 정보를 중심으로 텍스트가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한자는 의미를 성조로써 구분하는 반면에 우리는 뜻 새김을 붙인 자음으로 한자의 의미를 구분한다. 이러한 한자 학습의 방법은 중국에서 정해진 자음으로 읽지 않고 자국어 단어로 읽는 기상천외의 발상으로¹⁾ 오래전부터 토착화된 우리의 언어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근대 개화기에 이르러 문자 계층의 확대는 자전 체제의 변혁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학교 증설과 교육의 보편화로 한자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에 속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분함이 없이 누구나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했다. 그리고 갑오경장과 과거제의 폐지는 한자의 용도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킨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따라서 자전도 변화된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편찬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교육 계층의 다변화로 예전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近代字典이 편찬되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鄭益魯(1863-1928)가 펴낸 초판본 『國漢文新玉篇』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자전은 학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우리나라 자전 편찬의 역사를 기술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근대 한자 자전의 기점 문제와 애국계몽기에 한글 주석의 자전이 편찬되는 배경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한문신옥편』의 발행 시기를 1910년²⁾ 혹은 1911년³⁾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1909년 7월

1) 이기문, 「한자와 한글」, 『한자교육과 한자정책에 대한 연구』(한국어문교육연구회 편), 역락, 2005, 17쪽.

2) 유창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옥편>, 1991), 민중서림편집국(『漢韓大字典』<머리말>, 1997)

에 발행된 池錫永(1855-1935)의 『字典釋要』에 대해 최초의 근대 자전으로서의 그 편찬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점은⁴⁾ 시급히 정정할 부분이다. 이는 『자전석요』보다 일찍 간행된 초판본 『국한문신옥편』의 존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선행 연구의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고 『자전석요』에 붙여진 수식어를 『국한문신옥편』에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 제기된 바 있다.⁵⁾ 그런데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 내용이 소략하거나 재판본을 활용함으로써 빚어지게 된 해석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초판본 『國漢文新玉篇』의 서지 사항, 편찬자의 생애와 성향, 자전 편찬의 동기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발간된 근대 자전으로서의 특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 자전의 편찬 역사를 올바르게 기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먼저 자전 용어, 자전의 유형, 자전의 ‘근대성’과 관련된 몇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II. 近代 字典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한자 자전의 경우 ‘字典’이나 ‘玉篇’의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고,⁶⁾ ‘辭典’ 명칭은 50년대 이후에 간행된 자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 3) 小倉進平(『조선어학사』, 대판옥호서점, 1920), 최현배(『한글갈』, 정음사, 1940<개정판 1971>), 이충구(『한국자전 성립의 고』, 『반교어문연구』 제3집, 1991)
 - 4) 대표적으로 “옥편 중 최초로 근대적 색채를 띤 것”(소창진평), “글자음뿐 아니라 글자뜻까지를 한글로 달게 된 최초의 옥편”(최현배), “옥편 또는 한한자전의 효시”(신용하), “한국자전사상 최초의 한국음훈병기 자전”(이충구), “현대적인 자원의 신기원”(민중서림 『한한대사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자 자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자 사전”(『국어국문학자료사전』), “최초의 근대적 자전”(심경호)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 5) 전일주의 『한국 한자 자전 연구』(중문, 2003)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박형익의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월인, 2004)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 6) ‘자전’과 ‘옥편’ 용어는 초기에는 외국어를 대역한 사전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韓佛字典』(파리외지선교회, 1880), 『韓英字典』(언더우드, 1890), 『英韓

그런데 옥편이라는 명칭이 중국 육조시대 양나라의 고야왕이 편찬한 『옥편』과 동일하기 때문에 혼동을 빚을 수 있고,⁷⁾ 사전이라 할 때에는 표제자와 관련된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는 뜻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 사용 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한자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각 글자의 음훈, 자원, 용례, 어휘 등을 해설한 책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인 ‘字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전은 편찬자의 동기와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므로 사전 편찬자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정한 뒤 독자층의 욕구를 고려하여 표제자를 선정하고 어떤 정보를 강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곧 편찬자에 의해 사전의 형식과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다.⁸⁾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漢字 字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로 字義를 기준으로 한자를 분류하여 의미 정보와 발음 정보를 한글로 제시한 경우이다. 『千字文』, 『類合』, 『訓蒙字會』, 『新增類合』, 『兒學篇』, 『通學徑篇』 등을 들 수 있다. 대개 훈몽자서라 부르는 이 자전들은 초학 단계의 아동들을 위한 한자 학습서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표제자 분류 기준이 자서마다 다양한 점, 글자 수를 몇 천자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한자를 널리 수록하지 못한 점, 사물이나 개념을 하나의 부류로 나눈 뒤 한자를 배열함으로써 다양한 의미 정보를 담지 못한 점, 편집 체재상 한자 색인의 기능이 미흡한 점 등의 한계가 일찍부터 지적되었다.⁹⁾

둘째는 字音을 기준으로 한자를 분류하여 의미 정보는 한자로만, 발음 정보는 한자나 한글로 제시한 성운 자전이다. 『東國正韻』, 『四聲通解』, 『增補三韻通考』,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 『御定奎章全韻』 등이다. 이 자전들은 소위 ‘운서’라 일컫듯이 표제자의 발음 정보가 지배적이고, 의미 정보는 아예 없거나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¹⁰⁾

字典』(스코트, 1891), 『韓英字典』(계일, 1897), “선교사 계일 씨가 몇 해를 두고 조선말과 영어 옥편을 만들었는데”(『독립신문』 창간호, 1896년 4월 7일자) 등이다.

7) 사실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용어 ‘옥편’과 사전 『옥편』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박형익의 책, 18-28쪽 참고.

9) 훈몽자서의 단점에 대해 최세진(『訓蒙字會引』), 정약용(『敎釋說』·『千文評』, 『여유당전서』), 지석영(『字典釋要序』, 1906), 이승교(『國漢文論』, 『서북학회월보』 제1호, 1908) 등이 비판한 바 있다.

셋째는 字形을 기준으로 한자를 분류하여 의미와 발음 정보를 자세하게 기술한 자전이다. 『全韻玉篇』, 『國漢文新玉篇』, 『字典釋要』, 『新字典』, 『六書尋源』 등이 해당된다. 이 자전들은 한자를 부수별로 분류하고 획수에 따라 배열한 뒤 표제자의 의미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중에서 특히 『全韻玉篇』은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제시함으로써 “운서로부터 독립하여 우리나라에서 독립적 옥편의 선구를 지은 것”¹¹⁾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 정보는 여전히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근대 자전은 아닌 것이다. 한편 ‘옥편’이라는 이름처럼 이 유형에 속하는 『韻會玉篇』, 『三韻聲彙補玉篇』은 일정한 부수에 따라 한자를 분류한 색인 자전이다. 하지만 두 자전 모두 한글로 된 의미 정보가 전혀 없을뿐더러 발음 정보도 전자의 경우는 성운을, 후자의 경우는 운자만 한자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로 자전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1908년 11월 6일에 간행된 鄭益魯의 『國漢文新玉篇』을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성’을 띤 자전으로서 편찬사적 의의를 규정할 수 있다.¹²⁾ 여기서 근대성이라 함은 부수별로 배열한 표제자의 자음과 자의를 한글로 풀이하고 자음색인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자전이 갖는 효용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적 유통에 한계가 있는 목판본이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신식 활자본으로 제작함으로써 자전의 대량 보급으로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변모되는 사회적 상황과 독자층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찍이 정익로를 가리켜 “조선에서 처음 신옥편을 저술한 학자”¹³⁾로 평가한 것은 『국한문신옥편』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자전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초의 근대 자전으로서 지대한 의의가 있는 『국한문신옥편』의 외재적 특성과 편찬자의 성향이 어떠한가를 계속 고찰하기로 한다.

10) 강신항, 『한국의 운서』, 태학사, 2000 참조.

11)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사, 1971(초판, 1940), 213쪽.

12) 참고로 자전의 집필 시점은 『자전석요』가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지석영씨가 스년 동안에 한문 옥편을 국문으로 번역 하여 쉬히 기간 한다 하니”(『독립신문』, 1897년 11월 20일자), “携之箱篋, 今十五載”(민준호, 『字典釋要跋』, 1906)

13) 『동아일보』 1928년 2월 3일자.

Ⅲ. 『國漢文新玉篇』의 서지와 편찬자

1. 『국한문신옥편』의 서지 개요

초판본 『국한문신옥편』은 한글로 발음과 의미 정보가 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이다.¹⁴⁾ 책의 겉표지는 양장이고, 푸른 색 겉표지에 한 쌍의 태극기 그림이 음각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19.2cm 가로 12.8cm이고, 전체 분량은 405쪽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속표지 2쪽, 서문 2쪽, 총목 6쪽, 본문 288쪽, 부록인 간지 2쪽과 음운자휘 103쪽, 판권지 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8년 초판 발행 이후 訂正再版(1909.3.25 발행),¹⁵⁾ 三版(1910.10월말 경)¹⁶⁾, 訂正增補版(1911.8.15)¹⁷⁾ 등 세 차례 더 간행되었다.¹⁸⁾

속표지에는 책명과 간행 연도가 표시되어 있다. 서문의 필자는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단체인 ‘태극학회’ 기관지인 『태극학보』의 주필을 담당한 김원극이다. 總目은 부수를 획수별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해당 부수에 속하는 한자를 찾을 수 있게 본문의 쪽수를 병기하였다. 말하자면 부수 색인이다. 本文은 쪽당 10행의 세로로 편집되어 있고, 행마다 표제 한자 아래에 한글로 자음과 자의 주석을 두 줄로 붙여 전통의 방식을 계승했다. 附錄의 音訓字彙는 검자 색인표에

14) 이수정이 편집자로 참여한 『明治字典』(1888년 완간, 일본 동경 대성관 출판)은 근대적 형태로 한자의 음의를 한글로 단 첫 사례가 된다. 그런데 이 자전은 일본인이 자국민을 위하여 편찬했고 표제자마다 한글 주석을 모두 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한문신옥편』과 동일한 차원으로 다를 수 없는 성격이 있다. 이 자전에 대한 선행 연구로서 정광의 「명치자전의 국어어휘에 대하여」(『덕성여대 논문집』 11집, 1982), 이광린의 『개화기연구』(일조각, 1994), 차배근의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I)』(서울대 출판부, 2000)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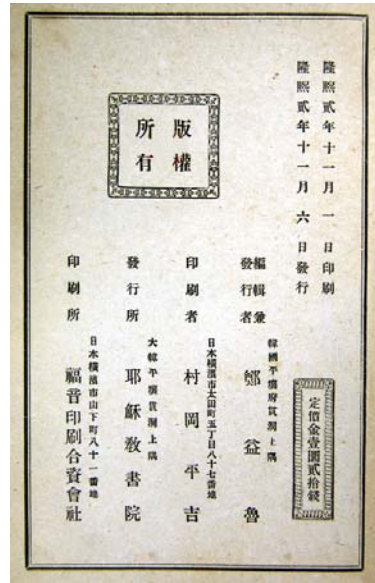
15) 박형익 책의 부록에 수록된 판권지를 의거했는데, 이 책은 현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율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6) 『매일신보』 1910년 11월 5일자 광고에 의함. “本 玉篇이 其間 絶乏됨으로 兪彦의 渴望호옵던 바 今番 三版에 正誤도 詳明히 호고 新字도 添入호야 粧冊이 今已完了호앗소오니 學界 兪彦은 陸續 購覽호심을 務望함”

17) 박형익 책의 부록에 수록된 판권지를 참고했다. 소장진평과 최현배가 자전 편찬사를 기술하면서 언급한 책은 바로 이 간행본이다.

18) 각 판본에 따른 내용의 변이 관계에 검토는 실물 자료를 구하는 대로 다루기로 한다.

해당되는 간지를 별도로 앞에 배치했고, 이어서 색인표에 제시된 것처럼 음운, 즉 가나다 순서로 한자를 모아 배열하였다. 그리고 음훈자회는 표제 한자마다 대표적인 자의를 한글로 병기해 놓아 본문의 표제자를 찾지 않고서도 간단한 자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부수별로 배열하지 않고 共通字素를 맨 앞에 제시하고 이를 포함하는 한자를 연이어 배열함으로써 字族 중심의 색인이 되도록 하였다.¹⁹⁾ 이러한 체재상의 여러 특징은 『국한문신옥편』이 갖는 근대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版權紙에는 출판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인쇄일은 융희 2년(1908년) 11월 1일이고, 발행일은 동년 11월 6일이다. 편집 겸 발행자는 鄭益魯이고, 인쇄자는 村岡平吉이다. 발행소는 평양 耶蘇敎書院이고, 인쇄소는 일본 요코하마 福音印刷合資會社이다. 그리고 당시의 옥편 가격은 1환 20전이다.



『국한문신옥편』의 판권지

한편 자전을 발행한 평양 야소교서원은 『대한매일신보』의 국한문판과 한글판에 광고를 곧바로 게재했다. 국한문혼용판에서는 1908년 11월 27일을 시작으로 12월 25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광고를 실었고, 때로는 독자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광고 이미지를 상하로 도치하여 신문에 게재하는 전략도 구사했다. 그리고 순한글판에서는 1908년 12월 9일부터 1909년 1월 10일까지 총 24회분을 내보냈다. 당시의 광고 내용을 보면 원매소는 야소교서원이고, 분매소를 서울과 지방의 여러 서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지역은 대발매 서점인 동일

19) 공통자소와 자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필자의 『디지털시대의 실용한문』(세종출판사, 2001)을 참고.

서관을 비롯하여 광학서포, 중앙서관, 박문서관, 유일서관, 경심서관, 야소교서원, 대동서서, 현공림 등 여러 곳의 분매소가 보인다. 이러한 간행 실적과 발간 광고로 볼 때 『국한문신옥편』은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자전임을 알려 준다.²⁰⁾

2. 편찬자 鄭益魯의 생애와 성향

편찬자 정익로(1863-1928)는 학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기독교 장로로서 초기 개신교사에 언급되거나 국권상실기의 독립운동가로서 더러 소개된다. 그의 출생지는 평안남도 순안군 군내면 군상리이고, 처음에는 상업에 종사하였다. 자전을 편찬할 당시 평양부 관동에 살았다. 1895년 기독교에 입교하여 1899년부터는 평양 장대현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1904년에는 주공삼과 함께 장로가 되어 교회 봉사에 앞장섰으며, 또한 조선어 사용의 장로회 공의회 회원이 되어 성경교육 장려를 위한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에는 평양 주재 선교사 마펫²¹⁾이 설립한 야소교서원의 운영을 맡았고, 이듬해에 그곳의 총무로 있으면서 서적 판매 및 문서 전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 개신교 발달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는 1907년 1월 평양 기독교대부흥회 때 그가 길선주 장로의 새벽기도 인도 장면을 목격한 뒤 이를 술회한 내용은 여러 책에서 곧잘 언급된다.²²⁾ 그리고 『국한문신옥편』을 간행하기 위해 1908년 3월 일본 도쿄에 가서는 재일 유학생들에게 교회 설립을 제의하여 초교파의 동경

20) 정익로가 1911년 요코하마에 『신옥편』을 직접 주문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국내 수요자의 요청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105인 사건 공판시달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경성복심법원 편>, 국사편찬위원회, 1986 참고.)

21) 마펫(Smuel A. Moffett, 1864-1939) : 미국인 선교사로 한자명은 馬布三悅 혹은 馬三悅. 1890년에 내한하여 서울에서 선교를 하다가 1893년 평양으로 가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전도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장로교 최초의 노회가 결성될 때 회장을 맡았으며, 같은 해 평양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한 뒤 교장으로 한동안(1904-24) 재직했다. 105인 사건과 3·1운동 때에는 한국의 입장을 대변했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다.

22) 이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선교사 계열인데, 원서에는 이름이 '정익로'로 오기되어 있다고 한다.(J.S Gale 저/신복룡 역, 『전환기의 조선(Korea in Transition, 1909)』, 집문당, 1999, 154쪽.)

한인교회가 1909년에 설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예수교 서원 사업에 전념하여 문서 전도에 힘을 쏟았는데, 1913년 한 해 동안 2만여 부의 복음서와 3만여 부의 서회 간행물, 기타 전도 문서 수 천부를 배포하는 실적을 올렸다. 평양에 머물면서 계속 문서사업에 종사하고 평양 기독교청년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조국이 상실되는 시대에 살면서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11년 10월 일본측의 음모극인 '105인 사건'(일명 사이토총독 암살음모사건 혹은 신민회사건)이 일어나자 암살 모의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언도받았다. 2심에서는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이었음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1년여의 옥고를 치르고서야 석방되었다. 그리고 일본 내무성에서 작성한 공식문건을 보면 1918년 요시찰 인물 대상으로 거명되어 있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만세사건으로 투옥되었고, 평양경찰서에서 관련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감 중에 있는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 태극기와 미국기를 압수한 사실도 있다. 1928년 1월 31일에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만국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떠나는 마펫을 전송하러 갔다가 뇌충혈로 별세하였다.²³⁾

이처럼 정익로는 애국적 성향을 강하게 띤 기독교 장로서 근대 계몽기에 선교를 통한 민중 교육과 애국 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3) 이 내용은 『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문사, 1984)을 주로 참고하되, 『매일신보』(1913년 3월 21일·23일자, 1919년 4월 16일자), 『동아일보』(1922년 3월 22일자·1928년 2월 3일자), 『개벽』 제51호(김기전·차상찬, 「조선문화기본조사」(8)-평남도호, 1924.9), 「조선인 개항 송부에 관한 건」(『해외항일운동자료』<구미편>, 국사편찬위원회), 「105인사건 공판 참관기(1912)」(Japan Chronicle특파원 저/윤경로 역,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05인사건 공판시말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2, 국사편찬위원회, 1986), 『영계 길선주』(길진경, 종로서적, 1980)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IV. 『國漢文新玉篇』의 편찬 동기

정익로가 『국한문신옥편』을 편찬한 동기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가 남긴 글에 의거해야 하나 직접 쓴 글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인 金源極²⁴⁾이 그의 요청에 따라 자전 출간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쓴 『國漢文新玉篇序』와 귀국하는 그를 위해 지은 『送鄭益魯氏歸國』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다. 아울러 책의 서지 사항들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김원극은 자의로 정익로를 일본 동경에서 처음 만났다. 그 전에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태극학회를 매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익로가 태극학회에 의연금을 기탁한 행위들,²⁵⁾ 김원극이 도일하여 『태극학보』의 주필로서²⁶⁾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학회지를 통해 서로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극학회의 사무실이 동경 시바쿠(芝區)에 있었고,²⁷⁾ 마침 자전을 출간하기 위해 1908년 3월부터 동경에 임시 거처를 두고 있던 정익로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이때 정익로는 원고를 한창 교정 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²⁹⁾ 김원극은 그가 일본에 까지 와서 자전을 출간하게 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입장에서 서문을 쓴 것으

24) 金源極(1872-1927) : 호는 松南, 松南春夢. 함남 영흥군 출생. 서북학회에서 활동하던 도중 1908년 6월 태극학회의 요청으로 도일하여 『태극학보』(1906.8 창간)의 주필로서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태극학회가 1909년 1월 대한총학회로 통합되면서 해체되자 귀국하여 서북학회의 부총무를 지내냈다. 1934년에는 서거 7주년 때 영흥 유지들이 그의 기념비를 세워 제막식을 거행한 사실이 있다.(『동아일보』1934년 11월 29일자)

25) 각주 63) 참조.

26) 김원극을 『태극학보』의 주필로 초대한 학회 회원들의 열렬한 환대와 기대 의식은 口丹山人의 글(『是日也에 滿心興感』, 『태극학보』 제22호, 1908년 6월)에 잘 나타나 있다.

27) 태극학회는 학보 창간호에서 종간호까지 동경 시내에서 네 차례 사무실을 옮겼다. 1호-13호는 本郷區 元町, 14호는 小石川區 上富坂町, 15호-19호는 小石川區 中富坂町, 20호-26호는 芝區 白金三光町에서 발간하였다.

28) 김원극, 『國漢文新玉篇序』 “今夏來遊東瀛, 一日訪箕城紳士鄭益魯氏旅館.”

29) 松南子, 『送鄭益魯氏歸國』 “現方付梓校正中則, 請其賜覽云云일식”

로 짐작된다. 그리고 인쇄를 마치고 귀국하는 정익로를 환송하면서 자전 편찬의 의의와 그 기대 효과를 담은 글을 『태극학보』에 곧바로 실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국한문신옥편』저술 동기를 한자 음의의 표준화, 계몽 지식의 대중 확산, 기독교의 저변 확대, 국권 회복의 정신 고취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자 音義의 표준화

한자는 字形, 字音, 字義 세 요소로 구성된 표의문자이다. 따라서 한자 字典은 글자의 형태, 발음, 의미 등의 정보를 온전하게 제시할 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형태 정보는 자원이나 육서를 밝히는 것이고, 발음 정보는 성운과 성조를 표시하는 것이며, 의미 정보는 글자의 의미와 용례, 관련 어휘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자전에서 이 세 요소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어떤 정보 영역을 생략하거나 특별히 강조할 수 있다. 정익로의 저술 동기는 우리나라의 전래 자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김원극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玉篇은 漢字의 音訓과 意義를 폭넓게 헤아리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 전 해지고 있는 옥편은 字音을 비록 국문으로 풀이하여 사람마다 깨닫게 하기 쉽지만, 그 뜻을 새김에 있어서는 한자로써 풀이하였다. 예를 들어 ‘無’자의 풀이는 ‘有’의 상대자라 하고, ‘有’자의 풀이는 ‘無’의 상대자라고 한다. 이것으로써 저것을 헤아리게 하니, 개념 풀이 자체가 어려운 형국이 되고 만다. “某字를 가리켜 某字”라 하여 입으로 전송되는 것을 따를 뿐이니, 하나라도 근거 문헌에 따라 이해한 것이 없다.³⁰⁾

그는 자전이 한자의 音訓과 意義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음훈은 한자의 발음과 의미를 뜻한다면, 의의는 한자가 쓰인 다양한 용례를 통해 이해되는 다양한 의미를 말한 것

30) 김원극, 「국한문신옥편서」, “夫玉篇之作, 爲其通攷漢字音訓意義矣. 我國傳來玉篇, 字音則雖以國文解之, 人人易曉. 至於釋義, 且以漢字解之. 若釋無字曰有之對, 釋有字曰無之對, 以此攷彼. 名詞難形, 惟其指某字曰某字, 從出於口頭傳誦, 一無眞詮文憑.”

이다. 그런데 전래되고 있는 옥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지칭한 옥편은 다름 아닌 『전운옥편』이다. 왜냐하면 통용되고 있던 ‘옥편’이름의 자전 중 유일하게 『전운옥편』만 字音を 국문으로, 字義는 한문으로 주석되어 있기 때문이다.³¹⁾ 표제자의 자의가 한문으로 풀이되어 있으니 한자를 모르는 부녀자나 아들은 의미 파악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상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한자를 풀이하는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제자 ‘無’와 ‘有’자가 갖고 있는 기본 의미를 풀이하는 대신에 상대 한자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자의를 유추해서 알도록 한 점이다. 곧 無의 자의를 모르면 有의 자의는 알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상대자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표제자의 일정한 의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용어의 정의가 자의의 동의어 반복에 수준에 그치게 되면 결국 순환 해석을 답습함으로써 표제자의 고유 의미나 확장 의미를 알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한자의 자음과 자의를 입으로 전달하는 언어 현실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구두는 담화 주체의 기억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억 구조는 정보를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자의 字音과 釋義를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한자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을 경우 그 音義를 일관되게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표제자의 음의를 구두에 의존할 경우 한 나라 안에서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방언의 사용은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³²⁾ 그리하여 방언으로 전해지는 훈독이 표준화되고 규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전을 낳기 십상이고, 그 결과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게 되는 음성 언어의 일반적 제한성을 지적한 것이다. 종래의 자전이나 언어 현실에서 보이는 중대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표제자의 발음과 의미 정보를 한글로 제시하는”(國文懸註) 새로운 형태의 자전 편찬이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익로의 자전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창안된 것이라면, 그 독자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자전을 편찬하게 된

31) 松南子, 「송정익로씨귀국」 “蓋見我國之舊日玉篇이 率以漢字釋義야 類難知得이라.”

32) 松南子, 「송정익로씨귀국」 “各以方言亂喧而一無定稱”

편찬자의 직접적인 동기와 관련된다.

내가 이 책을 살펴보니 字義의 대요를 풀이함에 순전히 國文을 사용하였다. 무릇 여러 설명을 덧붙였는데 건준 한자가 간단하고 평이하면서도 명쾌하다. 또 의심나는 것은 근거를 대어 밝혀놓았으니 풀이된 부류가 대쪽 자르는 것과 같았다. 또 끝에는 동음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여 모아놓았는데 한자를 찾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장차 이 책이 간행되면 우리 동포들의 생활에 학계의 새로운 면목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³³⁾

김원극은 『국한문신옥편』의 주요한 특징으로 字義 풀이를 國文으로 기술한 점을 들었다. 표제자의 풀이 내용을 누구나 보고서 이해할 수 있게 편집되었으니 독자성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셈이다. 특히 해석이 어려운 한자는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여러 의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새로운 개념의 자전으로 보았다. 그리고 발음 정보를 국문으로 제시한 것 외에 책 끝 부분에 관련 한자를 한글 순서로 분류하여 독립된 체계를 구성한 것을 함으로써 특색 있는 자전이 되게 했다. 곧 자전에서 색인 기능의 새로운 도입이라는 독자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한편 그는 한자의 음의를 고정화시킬 수 있으려면 새로운 체계를 갖춘 자전의 편찬이 절실함에도 당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덧붙이고 있다.

아, 이는 무슨 까닭인가? 나라가 몇 천 년이 지났어도 중국의 찌꺼기를 수습하는 것을 일삼고 스스로 연구하지 않아 문자상 혼독에 있어서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한 나라 안에서 같은 자를 풀이하면서도 각기 다름이 있으니, 이를 개탄한 지 오래 되었다.³⁴⁾

33) 김원극, 「국한문신옥편서」 “竊觀此篇, 釋其字義大要, 純用國文. 凡諸附會則, 比仿漢字, 簡易且明. 疑者對案, 解部如竹. 卷尾類合同音, 文字尋繹, 尤是瞭然明晰. 其將此篇刊布, 我同胞之日, 可見文學界一新面目矣.”

34) 김원극, 「국한문신옥편서」 “嗚呼, 茲曷故焉. 有國幾千年來收拾漢人唾沫爲事, 不能自究. 一般文字上, 訓讀靡有定屆. 一國之內, 同字之釋, 各有殊差, 是用慨然者久矣.”

우리나라 종래의 자전이 중국의 것을 전범으로 삼고 이전의 형식을 답습하는 편찬자들의 안일한 태도를 개탄하고 있다. 이는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공식으로 폐지됨에 따라 시문 창작을 위한 한문 지식보다는 원활한 의사 소통이나 전통 문헌을 위해 하기 위한 도구로써 한자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던 배경을 근저에 두고서 제기된 비판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자에 대한 일정한 혼독을 한글로 제시하는 독자적 체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새로운 자전 편찬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표제자의 음의를 표준화하고, 한글 중심으로 발음과 의미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익로가 새로운 개념의 자전을 저술한 한 동기이고, 이는 『국한문신옥편』이 전래의 방식을 탈피하여 한국적 특색을 갖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2. 계몽 지식의 대중 확산

한자의 音義를 표준화하려는 인식은 일차적으로 독자층의 지적 수준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갑오경장을 계기로 한문의 지배력이 퇴조하고 있었다지만, 한자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언어 현실이었다. 즉 양반이나 일부의 상위 계층이 한문이나 지식을 독점하는 현상이 줄어들는 대신 대중들이 언어 생활의 한 주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확대되는 교육 수요층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식의 대중화는 긴요한 실천 과제가 되었고, 이는 문자 생활의 변화를 전제할 때 성취될 수 있었다.

(내가) 침착한 태도로 감탄하면서 “아! 근래 우리나라의 뜻있는 지식인들이 교육계 창도를 자부하여 의무적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다양하게 저술하고 있는데 고심한 바가 있습니다. 설령 일반 남녀가 무식함이 있을지라도 한번 보면 문자의 지남이 될 만한 것은 이에 건줄 것이 없습니다.”고 말했다.³⁵⁾

35) 김원극, 「국한문신옥편서」 “悠然而歎曰 嗚呼. 近來我國之有志紳士, 自負教育界倡導, 義務教科書之許多新著, 已所苦心然. 至使一般男女有無識, 一覽而爲文字之指南則, 無有如此者也.”

말하자면 사회적 진보의 한 축을 담당한 지식인들이 대중의 각성을 위해 교육 기회의 확대를 확대하는 데 일종의 의무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위 입만 열면 앞 다투어 강조한 것처럼 당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학교를 건설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교과서의 편찬은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다.³⁶⁾ 특히 개화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나 민간에서 학교를 대거 설립함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수와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공급은 시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 변혁 시대의 이념에 적합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새롭게 조직하고, 무식한 남녀라도 한번 보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문체로 기술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는 김원극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인식이었다.³⁷⁾

김원극은 교육 기회의 확장, 문명과 산업의 발달 등과 관련된 근대의 신지식을 대중으로 보급하기 위해 편찬되는 교과서의 기술 문장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기술 문장의 형식에 대한 인식은 정익로의 자전 편찬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溯渊源委嗚呼 教育不振이 良以此也라 何也오 大抵 今日 教科書가 雖云以 國文編纂이라도 其骨子則無非漢字라 當初 漢字意味를 不能善覺則其學術之要領을 從難透得은 豈非事實이리요 (松南子, 『送鄭益魯氏歸國』, 띄어쓰기 필자, 이하 동일)

그는 교육이 중요함에도 결국 부진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교과서의 기술 형식에서 찾고 있다. 당시에 편찬된 교과서의 체제가 국문을 사용했지만 한자 위주의 국한문 혼용으로 구성된 특징을 말하고 있다. 교과서가 국문으로 편찬

36) 松南子, 「송정익로씨귀국」, “我國 今日 教育家가 動輒開口曰 教育擴張이 在於學校之廣設, 師範之養成, 教科書之譯刊, 資本金之鳩聚, 國文之研究 云云야.”

37) 「대한매일신보」〈논설〉 “書籍이 急於學校”, 1905년 11월 17일자
 심의성, 「論師範養成」,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 대한자강회, 1097년 7월.
 「황성신문」〈논설〉 “教科書의 不可不備”, 1907년 11월 17일자
 송남춘몽, 「教育方法必隨其國程度」, 『서북학회월보』 제1호, 서북학회, 1908년 6월.
 이준용, 「師範教育이 爲興學之急先務」, 『기호학회월보』 제2호, 기호학회, 1908년 9월.

되고 있으나 “그 골자는 한자 아닌 게 없으니” 한자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는 국문의 사용이 새로운 사회 계층의 이념 반영이라는 당위성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한자가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던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교과서가 국한문체를 사용하게 된 것은 특수한 시대적 조건에 따른 二重 문자 체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공문서에 국문을 기본으로 하되 국한문을 혼용하는 법령을 제정함으로써³⁸⁾ 어문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즉 국민들이 이해할 있도록 국문(한글)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당시의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한문(한자)도 혼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문체가 중심부에서 밀려난 자리에 국한문체가 들어서 국문체와 공존하는 모양이 빚어지게 되었다.³⁹⁾ 특히 학부 편집국에서도 순 국문보다는 국한문체 사용을 권장했고, 실제 『國民小學讀本』(1895), 『小學讀本』(1895), 『朝鮮歷史』(1896), 『泰西新史』(1897) 등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용 도서의 대부분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과서의 출판이 국문으로써 국민적 자긍심을 기리고, 한자의 혼용을 통해 신학문의 흡수와 국민 정신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데 그 기초를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⁴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황현은 ‘국한문’이라는 세 글자가 우리말처럼 되다시피 했다고⁴¹⁾ 평가했는데, 당시 문자 생활의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⁴²⁾

정익로가 자전을 집필하게 되는 시기인 1902년⁴³⁾ 이후에 국한문체는 계몽 지식을 담아내는 유용한 표기 방식으로 더욱더 활용되었다. 『中等萬國地誌』(주

38) 1894년 법률 칙령 제1호 公文式 제14조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39) 임형택, 「근대계몽기 국한문체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 『민족문화사연구』 14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년 상반기, p.21.

40)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p.97 참조.

41) 황현, 『매천야록』 권2(고종31년 갑오) 「국한문혼용」, “及甲午後, 趨時務者, 盛推諺文曰國文, 別眞書以外之曰漢文. 於是, 國漢文三字, 遂成方言而眞諺之稱泯焉. 其狂狹者倡漢文當廢之論, 然勢格而止.”

42) 갑오경장 이후 등장한 국문 운동과 한문의 방어 체계는 언어 세력 간의 계층적 이해 관계와 이념 갈등을 수반한 것이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강명관의 글(「한문폐지론과 애국계몽기의 국·한문 논쟁」, 『한국한문학연구』 8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5)을 참고.

43) 김원익, 「국한문신속편서」 “鄭益魯氏---曰此新証玉篇, 而開業今六年于茲矣.”

영환·노재연 역, 1902), 『樵牧必知』(정운수, 1903), 『牖夢千字』(계일, 1904), 『大東歷史』(정교, 1905), 『國語讀本』(학부 편찬, 1906), 『高等小學讀本』(휘문의숙, 1906), 『幼年必讀』(현채, 1907), 『瑞士建國誌』(박은식 역술, 1907), 『最新初等小學』(정인호, 1908) 등 당시 정부나 민간에서 발행한 교과서, 일반도서나 번역 서적의 절대 다수가 국한문혼용체로 서술되었다는 사실이다.⁴⁴⁾ 물론 이러한 현상은 신문, 잡지 등 여러 간행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되었다. 그리고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동양문화권에서 한자가 가진 실용성이나 계몽 지식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용성⁴⁵⁾ 등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글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국한문체 선호의 이면에는 일본 한자어가 조수마냥 조선어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다가 사용하게 된 사정도 있다.⁴⁶⁾ 이는 신문명이나 이념을 수용하는 직접적인 통로로서 국한문체로 번역된 일본 서적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⁴⁷⁾

이처럼 교육을 통한 민중의 각성과 산업의 부흥, 이를 뒷받침할 교과용 도서나 일반 서적의 편찬은 애국계몽기의 중대한 과제였다. 그리고 한자의 강점 때문에 교과서에서 다루는 외국의 선진 지식과 신문물 등의 체계들이 국한문혼용체로 기술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 계층에 진입한 민중들의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교과서의 내용 기술에 지배적으로 쓰이는 한자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자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국한문신옥편』은 새로운 독자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고, 한자 자전이 근대 지식의 대중적 확산을 통한 민중의 계몽 운동을 촉진하

44) 강운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1973, pp.139-242 참조.

45) 이능화, 「國文一定法意見書」, 『대한자강회월보』 제6호, 대한자강학회, 1906년 12월.

한홍교, 「國文과 漢文의 關係」, 『대한유학생회학보』 제1호, 대한유학생회, 1907년 3월.

이승교, 「國漢文論」, 『서북학회월보』 제1호, 서북학회, 1908년 6월.

46) 리득춘의 『한조언어문자관계사』(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2, p.268 참조).

47)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과제 중의 하나로 광범위한 서양 문헌의 번역이었고, 지식인들은 번역된 수많은 한자 어휘를 통해서 서구를 이해했다.(丸山眞男·加藤周一 공저/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참조)

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셈이다.

3. 기독교의 저변 확대

선교사들에게는 서구와 다른 사회 체계나 전통 문화에 기반을 둔 배타적 태도 외에 근대계몽기의 이중 문자 생활은 더욱 선교의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 초기에는 사회적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이나 교육에서 소외된 무식한 계층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일반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문체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기독교 문서를 발행하려고 고심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수백만 질의 신약성서와 전사본이 팔린 경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⁴⁸⁾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양반이나 유식 계층들도 점차 기독교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언어 문제가 복잡하게 노출되었다. 곧 구성원의 다양화는 근대계몽기에 국한문혼용체의 기독교 서적이나 문서 간행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출간된 서적의 예를 들면 『요한복음전』(서경조·M.C.Fenwick 공역, 1891), 『신약전서』(성서공회연합, 1896), 『張袁兩友相論』(밀른 저/마펫 역, 1898), 『鮮漢文新約全書』(성서공회연합, 1906) 등은 한자 병기나 국한문체로 서술되었다. 특히 『眞理便讀三字經』(야소교서국, 1895), 『三字經』(마펫, 1908) 등은 한자 문화에 익숙한 계층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직접 학습시키기 위해 편찬된 서적이었다. 이처럼 전도 대상이 양반이나 식자 계층, 초학단계의 아동에까지 확대되면서 국한문체 습득을 통해 기독교 교리나 신학문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자는 문자 언어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새삼 부각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사실은 『국한문신옥편』의 간행 동기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근거가 된다. 물론 한자 자전의 내용이 기독교 가치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곧 자전 발간이 기독교 신념을 실천하는 한 행위로서 의의가 있다는 표현이다. 다르게 말하면 자전이 국한문체로 된 기독교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교리를 심화시키는 도구적 성격을 지녔다는 의미이

48) J.S Gale 저/신복룡 역, 『전환기의 조선』, 110쪽.

다. 이에 따라 편찬자의 기독교 성향이 자전의 형태나 출판 관계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것이다.

우선 책의 형식과 관련하여 속표지가 기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음이 주목된다. 서명을 중심으로 출판 연도를 왼쪽에는 “大韓隆熙貳年”, 오른쪽에는 “救主降生一千九百八年”이라고 선명하게 밝혔다. 이는 정익로의 자전 저술 행위가 독실한 기독교 장로서 종교적 신념을 확고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책의 발행소가 耶蘇敎書院인데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898년 처음 기초를 마련하였던 야소교서회는 그 후 서울, 부산, 평양, 재령 등지에 각 서포를 설치하고 서회 간행물을 발간하고 판매하였다. 이 중에서 평양 야소교서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고, 선교사 마켓이 문서 선교를 위해 평양에 서포를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미약한 상태였는데, 1905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서적의 발행과 판매를 위해 평양 관동 상우 제4번가의 2층 양옥 건물에 정식 설립한 것이 바로 야소교서원이다.⁴⁹⁾ 이 때 서원의 총무를 맡은 정익로는 설립 과정에서 자신의 자본금을 많이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그리고 이 서점의 목적과 운영 방식, 취급한 서적의 성격은 당시의 광고를 통해 엿볼 수 있다.



『國한문신옥편』의 속표지

49)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99, 80쪽과 352쪽 참조.

50) 이와 관련하여 105인 사건의 심문 기록을 참고로 소개한다. “그대는 書籍商을 한다는데,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 “8,000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서적상은 교회의 책을 파는 것이므로 자본을 많이 요하지 않는다.”(“105인 사건 공판시말서” <제18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

本 書院樓에 諸般 新舊書籍과 各種 新聞을 具備하고 事務員이 來賓을 迎
接하고 書籍을 請求하는대로 酬應하오니 學問에 有志 僉君子는 來臨하시고
臨意 閱覽하시오

又敝院의서 發賣하는 萬種 書籍을 一一 枚舉키 不能하고 大綱만 記載하
오니 照亮後 先臨 購覽하심을 敬要

聖經 國文漢文英文日文 道學 各種	天文 各種	地理 各種
地圖 國文漢文各種	圖說 歷史 國文漢文各種	格致 國文漢 文各種
算學 國文漢文各種	教科書 並課本等類 國文漢文各種	植物動物 國 文漢文各種

儒書 大小板各種 醫學 內外國繙譯各種
平壤 貫洞 上隅 第四番家 耶蘇敎書院 告白⁵¹⁾

이 서원에서 판매한 서적은聖經을 비롯하여 철학, 천문, 지리, 지도, 역사, 산학, 산학, 교과서 등 새로운 문물이나 문명과 관련되는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있었다. 발매 서적 중 성경을 맨 먼저 제시한 점은 야소교서원의 성격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취급한 서적의 절대 다수가 국한문체로 기술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유학과 의학을 소개하는 글씨의 크기가 유난히 작은 것은 시대적 성격을 암시한다. 이는 유학 서적이 구시대의 이념적 가치를 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수량이 적었고, 의학 분야는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서적이 부족했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서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만여 가지에 이르는 대량의 서적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서원 내에 사무원을 둔 점도 독특하다. 또한 교회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서적 구입을 도와주기 위해 1908년부터 평양 시내 세 곳에 지점을 확대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⁵²⁾ 주로 관서 지방의 출판과 서적 판매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다고 한다.⁵³⁾ 아울러 이 무렵에 야소교서원의 관리자로서 정익로 외에 金聖鐸⁵⁴⁾도 함께 참여한 사실도

51) 『황성신문』, 1906년 9월 25일자 광고.

52) 『황성신문』, 1908년 3월 10일자 광고 참조.

53)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 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1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년 상반기, p.53.

54) 金聖鐸(1875-1939) : 평남 평양 출생. 1901년 평양 판교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뒤 얼마 후 장대현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1907년에는 정익로·박치록 등과 함께 당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고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익로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매하는 서적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대량으로 취급하였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야소교서원은 영업 이익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적을 공급함으로써 획득되는 ‘공익’을 운영 방침으로 내세웠다.⁵⁵⁾ 이는 당시의 서적 판매자들이 높은 이윤만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국가 문명과 서적 문화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여 학계에 큰 손실을 입히는 현상을 경계한 의도로 보인다. 열악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자의 집필 활동을 배려함과 아울러 기독교 전문 서점으로서 서적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종교적 입장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곧 야소교서원은 지식인의 출판 지원과 서적 문화의 발전을 창도함으로써 민중들에게 계몽 지식을 전파하는 사회적 의의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했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보급함으로써 사회 계몽이라는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 야소교서원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쳤고, 국한문혼용체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전 편찬을 일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이를 수행한 인물이 바로 정익로였던 셈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익로의 신앙적 입장은 출판 과정에서 인쇄소의 선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판권지를 보면 『국한문신옥편』의 인쇄자는 무라오카 헤이키치(村岡平吉, 1859-1922)이고, 인쇄소는 요코하마 福音印刷合資會社로 나온다. 무라오카는 1883년 이수정에게 세례를 준 미국인 선교사 녹스(G. W. Knox)에게서 세례를 받고,⁵⁶⁾ 요코하마 시로(指路)교회 장로로서 활약한 인물이다. 그는 1887년 중국 상해로 가서 서양 인쇄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발간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쇄소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가 1898년 두세 명의 동지들과 공동 출자하여 요코하마 山下町 81번

향인 강동군 송오동교회 목사로 부임했고, 1923년 진남포 비석리교회와 1934년 진남포 억이교회 목사를 각각 역임하였다. 한편 1920년에는 상해 독립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수배 대상자가 되기도 했다.(『기독교대백과사전』,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5집<국사편찬위원회, 1970> 등 참조)

55) 『매일신보』, 1910년 9월 4일자 광고. “現今 我國에는 有志 諸氏의 勞心 研究한 結果로 著述 編輯한 書籍이 數百種에 達하였스되 定價는 最高하고 割引은 甚厚함으로 發賣營業者의게는 幸福이라 홀지나 一般 學界에는 大不幸이라 故 本 書院에서 營業上 薄利를 不顧하고 但 以書籍發展에 公益으로 目的한다--”

56) 오윤태, 『한국기독교사(개신교전래사)』 IV<이수정편>, 혜선출판사, 1983, 61쪽.

지에 복음인쇄합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이 인쇄소가 있던 요코하마는 외국인 거주지로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와 기독교계 학교가 설립되는 등 외국 선교사들의 기독교 전도와 교세 확장의 거점이 된 지역이었다.⁵⁷⁾ 한글을 포함하여 일본어와 영어 활자뿐 아니라 중국, 몽골, 인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각국 활자를 구비하였는데, 1890년대부터 동남아 각국의 성서와 교회 서적은 거의 그의 손을 통해 출판되었다고 한다.⁵⁸⁾ 정익로가 일본의 복음인쇄합자회사를 선택한 것은 이 인쇄소가 최신의 다양한 활자와 선진 인쇄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자전의 제작 능력도 있었고, 아울러 기독교 서적이거나 일반 서적을 국내에 보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⁵⁹⁾

이처럼 『국한문신옥편』의 속표지에 서기 연도를 명시하고 일본의 기독교 전문 인쇄소를 선택해 출판한 것은 정익로가 신앙을 직·간접적으로 실천한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되고, 한자 자전의 활용을 통해 국한문체로 된 수많은 기독교 관련 서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독교 교세의 대중 확대라는 심층적 의미가 있다.

4. 국권 회복의 정신 고취

정익로가 자전을 편찬한 또 다른 이유로 국권 회복의 애국 정신을 들 수 있다. 우선 자전의 제목을 ‘국한문신옥편’으로 명명했다는 점이다. 제명은 책 전체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이 자전이 한자 대역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국한문’으로 명명하여 ‘국문’을 뚜렷이 내세운 것은 일제강점기에 나온 여타 자전

57) 도히 아키오 저/김수진 역, 『일본기독교사』, 기독교문사, 1991. p.106.

58) 무라오카 헤이기치와 복음합자인쇄회사의 내용은 「기독교타임즈」(특별기획-“아시아를 사랑하고 선교에 힘썼던 사람들”, 2003.12.11)에 의존하였다.

59) 실제로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으로 전소되기 전까지 이 인쇄소에서 발간한 많은 기독교나 일반 서적들이 국내에 수입되어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초기의 성경 간행물만을 대략 들어보면 『신약전서』(1900), 『신약전서』(1904), 『창세기』(1906), 『시편』(1906), 『선한문신약전서』(1906), 『잠언』(1907), 『출애굽기』(1907), 『사무엘전·후』(1907), 『열왕기상·하』(1908), 『이사야』(1908) 등이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김병철, 을유문화사, 1975)와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김봉희, 이화여대 출판부, 1987)를 참조.

의 명칭이 대개 內鮮, 漢鮮文, 日鮮文, 漢和鮮, 內鮮滿漢, 日鮮華英 등 다중 대역을 의미하는 접두어를 붙인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전에서 중국의 잔재를 없애보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자전이 중국의 발음에 집착하고 자음이나 자의에 대한 정보를 한자로 제공함으로써 독자층을 일부 유식 계층에 한정시키고 마는 현상에 대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곧 국권이 상실되던 시기에 국문으로 주석된 자전의 출현은 편찬자의 민족 계몽과 애국 의식이 강하게 투영된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국한문신옥편』의 겉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른색의 표지에 한 쌍이 교차된 태극기가 인쇄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국왕과 황태자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교파를 초월하는 연합축하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애국가를 제창하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종종 있던 일로, 그 후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온 역사적 의의가 있다.⁶⁰⁾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의 제호란에도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이처럼 태극기는 국가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족의 동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렇다면 책의 겉표지에 쌍으로 된 태극기 문양을 새겨 넣은 발상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하는 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황성신문』의 제호에 『국한문신옥편』과 동일한 태극기 문양을 새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극학회의 기관지 『태극학보』의 표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태극학회의 민족 계몽과 애국 활동은 국내외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또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⁶¹⁾ 짧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5개 지회가 결성되었고, 지식인들의 학회 지원과 학회지 보급을 위한 의연금 기탁, 격려 서신 투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중 태극학회의 영흥지회는 국내 지회 중 가장 늦은 1908년 9월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영흥 동명학교 교감과 교사가 『태극학보』를 받아보고 난 뒤 8월 17일 주필 김원국에게 쓴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皮絨을 剪垢하고 靑衣冊子를 露呈하니 表面에 太極 國旗 一雙은 活活히

6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292쪽.

61) 재일유학생들 단체의 애국 활동, 태극학회와 미국 공립협회의 유기적 관계 등에 대해 『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김기주, 느티나무, 1993)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交叉하였고 其下에 太極學報 4자는 團團히 標題하였더라 于時에 東南賓朋이 本校에 邂逅히 會面하였는디 咸曰 金源極氏가 今坐於萬里之外하야 本國同胞의 醉夢을 撼醒케 爲하야 血淚를 洒하고 此報를 此에까지 遠布하였스니--- 其注意를 單純히 忖度하건디 但只 國權挽回에 在하다 斷言홀지로다⁶²⁾

위 글에서 ‘청의책자’는 푸른색 표지의 『태극학보』를 지칭한 것이다. 학회지 표면에 태극기 한 쌍이 활기차게 교차하고 있으며, 태극기 아래로 ‘태극학보’ 제호가 힘찬 필세로 쓰여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영흥의 지사들이 국가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은연중에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김원극의 깊은 식견과 애국적 활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증폭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정익로는 태극학회를 지원하기 위해 1908년 1월 의연금 2환을 기탁한 사실이 있다.⁶³⁾ 또 그가 운영책임자로 있던 평양 관동의 야소교서원은 1908년 2월 『태극학보』 제18집부터 국내 출장소 및 특약판매소로 지정되었다.⁶⁴⁾ 이는 야소교서원은 운영을 맡고 있던 정익로가 민족 계몽과 국권 만회를 위해 활발히 펼치고 있는 태극학회의 활동을 전적으로 찬동한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국한문신옥편』이 『태극학보』의 영향으로 태극기 문양을 표지에 음각하였고, 이는 애국 정신의 표출이라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김원극은 교육이 부진한 것은 한자 이해도가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국권 상실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식했음을 앞에서 보았다. 나아가 『국한문신옥편』의 저술이 미칠 사회적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김원극이 쓴 글 일부를 인용한다.

氏가 今劊劊을 已畢하고 本國에 將還홀세 言을 更請호노니 言歸之日에 對我全國長老諸氏호야 社會及教育上 公益事業에 並武共進호기를 申申勸告호야 衆力所到에 轉危爲安호고 濟否爲泰호야 文明光線中에 太平福樂을 共享케 함을 是望是祝호노라 (松南子, 『送鄭益魯氏歸國』)

62) 이달현의 2인, 「恭呈于太極學報主筆 金源極閣下」, 『태극학보』 제26호, 1908년 11월.

63) 『태극학보』 제17집<사고·편집후기>, 1908년 1월.

64) 『태극학보』 제18호<사고>, 1908년 2월.

그는 정익로가 기독교 장로임을 전제하고, 그가 귀국해서 해야 할 공익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 발전과 민중 계몽을 위한 교육이다. 심각한 국체의 위기, 민생의 불안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차원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전국의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타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근대적 정치 질서를 모색하고 새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국권 회복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던 기독교 세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둔 표현인 것이다. 이는 초기 개신교는 봉건적 통치구조에서 소외되었던 서북 지역의 ‘자립적 중산층’을 중심으로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고,⁶⁵⁾ 또 이들 중 상당수가 뒷날 태극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애국 운동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사회 진보를 위한 기독교 장로들의 민족 계몽 활동을 대단히 중시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한문혼용체로 된 텍스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중들의 각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애국 세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곧 자전은 국한문체 서적의 이해를 도와 민중 교육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롭게 각성된 이들이 기독교 장로들과 함께 사회 발전과 국권 회복의 공익 활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를 통해서 정익로가 자전을 편찬한 하나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⁶⁶⁾

이처럼 자전의 명칭에 국문을 앞세운 점, 겉표지에 한 쌍의 태극기를 당당하게 배치한 점, 국한문 텍스트 이해를 기반으로 기획된 민중의 각성, 편찬자와 태극학회의 관계 등을 통해 『국한문신옥편』의 편찬이 애국 계몽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자전을 편찬한 정익로의 애국적 성향을 읽을 수는 있는 것이다.

65) 이광린, 「개화기 관서지방과 개신교-개신교 수용의 일사례-」,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79, 참조.

66) 그는 105인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삼일 운동 전에는 불령선인으로 요시찰 대상이었으며, 삼일 운동 때에는 재차 수감되었던 경력에서 보듯이 자전 편찬 당시에 가졌던 어문을 통한 민족 운동의 정신이 일생동안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되었다.

V. 마무리

본고에서 처음 공개한 鄭益魯 편찬의 초판본 『國漢文新玉篇』은 한국 字典의 편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서지 사항, 편찬자의 생애와 성향, 자전 편찬의 동기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발간된 근대 자전으로서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國漢文新玉篇』은 『全韻玉篇』을 계승하면서도 의미 정보를 한글로 제시하지 않은 한계를 탈피하여 標題字를 부수별로 배열한 뒤 자전 편찬사상 최초로 字音과 字義를 한글로 풀이하고 자음색인을 별도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자전의 근대성을 직접 드러낸다. 또 자전을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신식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도 근대적 성격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리고 편찬자의 행적과 방증 자료로 활용하여 자전의 編纂 動機를 규명할 수 있었다. 그는 교육 수요층의 확대에 따라 다양하게 편찬되는 국한문혼용체의 텍스트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자의 音義를 표준화함으로써 근대 신 지식의 대중화와 기독교의 저변 확대라는 성과를 기대했고, 이를 통해 민중 계몽과 국권 회복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자전을 편찬한 것이라는 결론에도 달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새롭게 부상한 독자층의 요구를 수렴한 것으로 자전 편찬이 갖는 시대적 의의를 말해준다.

이처럼 『국한문신옥편』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성격을 지닌 자전으로서 그 위상을 갖는다면, 내재적 측면에서 전통의 자전을 계승하고 극복한 실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울러 그것이 『字典釋要』·『漢鮮文新玉篇』·『新字典』 등 후대 자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전의 발달사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할 과제인데, 차후의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주제어 : 자전, 근대성, 鄭益魯, 표제자, 부수, 자음, 자의, 색인, 편찬 동기, 계몽, 애국, 기독교, 『國漢文新玉篇』, 『字典釋要』, 『新字典』

참고문헌

- 鄭益老, 『國漢文新玉篇』, 평양 야소교서원, 1908.(필자 소장)
- 1池錫永, 『增補附圖 字典釋要』(5판), 회동서관, 1920<초판 1909>.(필자 소장)
- 玄公廉, 『漢鮮文新玉篇』(5판), 회동서관, 1924<초판 1913>.(필자 소장)
- 崔南善, 『新字典』(5판), 신문관, 1928<초판 1915>.(필자 소장)
- 강명관, 「한문폐지론과 애국계몽기의 국·한문 논쟁」, 『한국한문학연구』 8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5.
- ,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14호, 1999 상반기.
- 강신항, 『한국의 운서』, 태학사, 2000.
- 강운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1973.
- 길진경, 『영계 길선주』, 종로서적, 1980.
- 김기주, 『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 느티나무, 1993.
- 김민수, 『신국어학사』, 일조각, 1980(전정 2판).
-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 김봉희, 『한국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99.
- , 『한국 기독교 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 이화여대 출판부, 1987.
- 류탁일, 「개화기 교과용 도서 총록」, 『한국학논집』 제2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 리득춘, 『한조언어문자관계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2.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역,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 사상』, 소명출판, 2000.
- 박형익,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2004.
- 백락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1973.
- 심경호, 『한학연구입문』, 이회, 2003.
- 오운태, 『한국기독교사(개신교전래사)』Ⅳ<이수정편>, 혜선출판사, 1983.
- 이광린,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 , 『개화기연구』, 일조각, 1994.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 이충구, 『한국 자전 성립의 고』, 『반교어문연구』 제3집, 반교어문학회, 1991.
- 임형택, 『근대계몽기 국한문체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14호, 1999 상반기.
- 전일주, 『한국 한자 자전 연구』, 중문, 2003.
- 정 광, 『덕성여대 논문집』11집, 덕성여대, 1982.
- 차배근,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Ⅰ)』, 서울대 출판부, 2000.
-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사, 1971(초판 1940).
- 하강진, 『디지털시대의 생활한문』, 세종출판사, 2001.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Ⅰ, 기독교문사, 1989.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편, 『한자교육과 한자정책에 대한 연구』, 역락, 2005.
- 황 현, 『매천야록(교주본)』(서남동양학자료총서5), 문학과 지성사, 2005.
- 신용하, 『지석영전집』<해제>, 아세아문화사, 1976.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970.
-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2, 1986.
- _____, 『해외항일운동자료』<구미편>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기독교문사, 1984.
- 민중서림편집국, 『한한대사전』, 1997.
- 한국사전연구사,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 J.S. 게일 저/신복룡 역주, 『전환기의 조선(1909)』, 집문당, 1999.
- 도히 아키오 저/김수진 역. 『일본기독교사』, 기독교문사, 1991.
- Japan Chronicle 저/윤경로 역. 『105인 사건 공판 참관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小倉進平, 『조선어학사』, 대판옥호서점, 1920
- 丸山眞男·加藤周一 공저/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 신문 잡지류 :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기독교타임즈』, 『태극학보』, 『서북학회월보』, 『기호총학회월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학유학생회학보』, 『개벽』 등

<Abstract>

The Motive of the Compilation of the First
Korean Modern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Explained in Korean,
Gookhanmun-shinokpyeon(國漢文新玉篇)

Ha, Kang-Jin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explained in Korean, *Gookhanmun-shinokpyeon*(1908), written by Chung, Ik-Ro(鄭益魯, 1863-1928) and introduced into the academic world in the first place through this article,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the compilation of wordbooks of Chinese characters explained in Korean. this dictionary was published at first in Korea among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the study finds out about characteristics of this dictionary through the analysis of bibliography, compiler's life and character, and the motive of compilation.

The new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explained in Korean, *Gookhanmun-shinokpyeon*(國漢文新玉篇), succeeded to the old Chinese-character dictionary, *Jeonunokpyeon*(全韻玉篇). However, it overcame the limitation of *Jeonunokpyeon* which didn't suggest information about Korean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each Chinese character. It was a modern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in terms of explaining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each Chinese character in Korean after arranging title characters according to radicals, and making an index of pronunciation at first in the history of complication of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It was also evaluated as a modern type of dictionary in that it was published by a new

printing method to distribute largely.

The motive of the compilation of the dictionary could be found out through the compiler's lifetime achievements and evidential data. The compiler expected the popularization of modern new knowledge and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by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each Chinese character in order for many Korean people to read various books,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which were published to meet the demand of educatee who were increased in number suddenly. He also compiled the dictionary to enlighten the ignorant people and inspire patriotism of Korean people for national independence. This indicated that the compilation of the dictionary met the needs of the ages.

If the dictionary has a position as a first Korean modern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explained in Korean, people should analyse the substantial contents overcoming and succeeding to the traditional Chinese-character dictionaries. In addition, people should analyse the influence of the dictionary to the later dictionaries such as *Jajeonseokyo*(字典釋要), *Hanseonmun-shinokpyeon*(漢鮮文新玉編) and *Shinjajeon*(新字典) in detail. This is a very important assignment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explained in Korean. Therefore, further studies will be continued about this.

Key Words :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explained in Korean, modernity, Chung Ik-Ro(鄭益魯), title characters, radicals,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each Chinese character, Christianity, the new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explained in Korean(*Gookhanmun-shinokpyeon*, 國漢文新玉篇)